

# 국제정치의 인과성과 메커니즘: 방법론적 고찰\*

민 병 원 | 이화여자대학교

이 논문은 국제정치학의 탈실증주의 추세를 검토하고, 기존의 인식론적 논쟁에서 야기된 패러다임 간의 대화 단절과 소통 부재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존재론적 논의의 의미를 짚어본다. 이러한 고찰은 인간의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모델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론적 다원주의로 이어진다. 특히 관찰할 수 없는 것도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과학적 실재론을 소개하고, '메커니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과관계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열린 시스템으로서 사회현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론의 미결정성 및 창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커니즘적 설명모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일반법칙과 같은 규칙성을 발견하는 데에만 집착해온 실증주의적 인과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 논문은 '과학적' 탐구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재단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패러다임의 학문적 노력들을 최대한 인정함으로써 서로 호환적이면서 지식 축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과학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주제어:** 국제정치, 인과성, 메커니즘, 방법론, 설명모델, 과학적 실재론

---

\*이 논문은 2015년 2월에 개최된 한국정치학회 방법론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논문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토론자와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I. 들어가는 말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 중 하나로서 국제정치학은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학문적 통합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보여 왔다. 이러한 열망은 수 세기에 걸쳐 지속되어온 ‘과학’의 놀라운 성과에 힘입은 것이었는데, 실증주의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에서 주류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 방법론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제정치학은 다른 어떤 사회과학 분야보다 치열한 패러다임 간의 다툼이 전개되고 있으며, 학문적 통합을 위한 노력도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국제정치학의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온 통계분석 중심의 실증주의적 접근법이 지닌 한계를 짚어보고, 그로부터 다양한 접근방법 사이의 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실증주의적 데이터 분석의 인과모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설명모델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탈(脫)실증주의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고, 과학적 실재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존재론적 성찰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개념이 학문적 대화와 통합을 추진하는 바람직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럼으로써 전통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변수 선정에 치중해오던 실증주의의 제약을 극복하고, ‘타당한 설명’을 위한 설명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제II장에서는 국제정치학에서 실증주의 과학이 수립해온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특징을 규명하고, 상관관계 위주의 데이터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실증주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제기되어온 탈실증주의의 움직임을 검토한다. 또한 이것이 어떻게 ‘제3의 논쟁’과 같은 인식론적 갈등을 심화시켜 왔는지를 살펴보고, 과학적 실재론을 중심으로 한 존재론적 성찰이 인식론적 갈등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인과적 설명의 수단으로서 ‘메커니즘’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논의한다. 제III장에서는 메커니즘의 개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인과적 메커니즘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여 어떤 속성을 갖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4장에서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논의가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 논쟁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짚어본다.

## II. 국제정치학의 실증주의 경향과 인과성의 개념

### 1. 실증주의 과학과 국제정치학

국제정치학은 내용과 성격상 오랫동안 ‘미국의 사회과학’으로 자리매김 해왔다(Hoffmann 1977, 41). 국제정치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발간되는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국제정치 논문의 주류는 여전히 실증주의적 연구, 특히 통계분석에 치우쳐왔다.<sup>1)</sup> 또한 국제정치학자의 2/3 정도가 인식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자신을 ‘실증주의자’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질적 연구방법이나 공리적 접근법, 또는 서술적 연구 등은 10% 내외의 낮은 비율에 머물러 있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 중심의 추세는 현실주의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성주의자나 탈근대주의 성향의 학자들이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그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Maliniak et al. 2011, 450-454).

사회과학의 발전이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학’의 전통 위에 이루어져 왔지만, 아쉽게도 과학만능주의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그동안 흠의 경험 과학 전통을 이어받아 ‘검증가능성’과 ‘반증가능성’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비엔나학과와 포퍼, 페러다임 간의 통약불가능성을 설파했던 쿤, 과학적 연구의 진보와 퇴보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연구 프로그램’의 과학이론을 확립한 라카토스, ‘연구전통’의 개념을 통해 진리 여부보다는 문제해결의 능력을 과학적 발견의 기준으로 삼았던 라우든은 모두 과학의 본질에 관한 논쟁사에 큰 획을 그어왔다. 하지만 국제정치학에서 ‘과학’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실증주의와 반대 진영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첨예한 상황이다(Jackson 2011, 16).

실증주의자들은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이 측정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변수화하

1) 이 연구는 심사를 통해 게재를 판정하는 정치학 및 국제정치학의 우수한 학술지 12종의 특정 회차에 게재된 논문 2806편과 더불어 1719명의 국제정치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Maliniak et al. 2011, 441).

고, 변수값이 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집중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많은 수의 변수를 통계적으로 다루는 회귀 분석과 가설검정을 꼽을 수 있다. 주로 계량 데이터들이 많이 사용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수의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를 통한 일반화의 노력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표준 통계분석은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지,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 또는 반대되는 주장을 가설로 제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설에 포함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X \rightarrow Y$ )의 크기를 측정된 후에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회귀분석을 통해 확보한 종속변수의 상관계수( $\beta$ 값)가 우연하게 도출된 것인지 아니면 설명변수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상관계수가 우연의 결과일 수 있다는 반대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면 자신들이 제시한 연구가설이 맞다는 주장을 확률적으로 제시한다. 소위 ‘영가설검정’이라 불리는 이러한 방법은 양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치학과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여전히 주류 연구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관행이 오늘날 실증주의 과학의 중심을 이루는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우선 회귀분석이나 영가설검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의도 테스트의 취지가 본래 표본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오류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러한 ‘통계적 유의도’가 마치 자신들이 발견한 상관계수의 ‘현실적 중요도’인 양 간주하는 성향을 지적할 수 있다(Nuzzo 2014, 151).<sup>2)</sup> 엄밀한 통계분석에서 어떻게 이런 오류가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역사적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점은 이와 같은 과학적 방법이 ‘관료적 지식’으로서 학계에 정착하면서 과학주의의 편견을 부추겼다는 사실이다(Ziliak and McCloskey 2008, 238-244). 회귀분석이나 가설검정의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부정확하게 해석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분명 주의해야 할 점이다.

실증주의 분석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양적 분석은 변수들 사

2) 통계분석의 유의도, 즉 ‘ $p$ -값’은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상관계수가 우연하게 도출될 가능성의 기준치를 의미하는데, 모수에서 부분적으로 추출한 표본의 속성이 통계분석에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값을 줄일수록 자신들이 연구하는 변수들의 현실적 중요성이 크다는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곤 한다.

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지만, 설명변수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밝혀내는 것은 단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변수들 사이의 규칙성 또는 일정하게 관찰되는 패턴일 따름이다. 이러한 규칙성은, 비록 설명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앞서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두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국제정치학 데이터들이 다른 학문에 비해 수집과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실증주의의 문제는 더욱 치명적이다. 분쟁연구의 대표적 데이터베이스인 COW (Correlates of War)의 경우, 사례와 변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연구가 인과관계보다 상관관계에 치우쳐왔으며 연구 결과들이 지식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Dessler 1991, 344). 또한 상관관계 연구는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여러 전제조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럴 경우 인과관계는 오로지 경험적 규칙성이 얼마나 강하게 존재하는가에만 달려 있다. 상관관계 연구가 희귀 사건 또는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만큼 상관관계 연구는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블랙박스’로 덮어둔 채 변수 사이의 공분산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인과성을 드러내는 데 커다란 한계를 안고 있다(Mahoney 2001, 577).

## 2.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국제정치학의 실증분석들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치부하거나 상관관계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론함으로써 많은 문제에 봉착해왔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지만, 실증분석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결과를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만약 우연적인 요소가 커진다면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간접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제3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두 변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George and Bennett 2005, 132). 또한 변수들 사이에 인과관계의 방향이 모호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분석의 가설과 달리 인과관계의 방향이 반대로 존재하기도 하며, 변수들 사이에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Elster 2007, 49).

이처럼 정치학과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온 실증주의적 인과관계 분석의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편협한 ‘인과성’의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실증주의 정치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킹(Gary King), 코헤인(Robert Keohane), 버바(Sidney Verba)의 『사회탐구의 디자인』(*Designing Social Inquiry* 1994)에 따르면, 인과성이란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s)를 의미한다. 이것은 설명변수의 값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체계적인 변량, 즉 ‘평균 인과효과’를 뜻한다. 종속변수의 변량 중에서 임의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설명변수에 의해 야기된 체계적인 변화의 크기가 곧 인과성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King et al. 1994, 81-82). 이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측정된 변수 값의 변동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와 같은 인과성의 개념은 선행하는 설명변수와 뒤따르는 종속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의 틀에만 집중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인과성 개념은 데이비드 흄의 경험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흄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기관은 동기와 행동 사이에 형성되는 인과관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를 감지할 수 없다.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지하는 사건들 사이에 규칙성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원인이 되는 사건을 관찰할 때마다 그 효과로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심리적 조건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흄은 인과관계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부 기대’라고 보았다. 관찰 가능한 사건들의 연속적 발생이 인과관계라는 것이다(Suganami 2013, 627). 하지만 이러한 흄의 유산이 국제정치학과 같은 거시적 학문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기는 어렵다.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의 복잡성은 인간의 관찰이나 실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며, 관찰된 데이터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려는 노력이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과학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대상을 다루는 생물학의 경우, 인과성의 논의가 물리학이나 화학에 비해 지극히 제한적이고 비결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해왔다. 생물학적 사건은 돌연변이처럼 우연적인 원인이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변화의 고유한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일반법칙에 도달하기가 더욱 어렵다. 생물시스템의 인과성은 ‘완전한 예측’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계적 예측만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생물학의 개체들이 어떤 목적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생명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최종상태 또는 조화로운 모습

이 원래부터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선택의 '사후적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다(Mayr 1988, 33-34).<sup>3)</sup> 이와 같은 생물학의 고민이 국제정치학과 같이 거시적 사회 탐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의 대상이 복잡해질수록 좁은 의미의 인과성 개념을 넘어 이를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국제정치학 연구의 주류 방법으로 자리 잡아온 실증주의적 분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회귀분석과 가설검정 등 양적 분석기법들은 매우 제한적인 차원의 인과성 관념을 바탕으로 한 파편적인 연구 성과만을 양산해왔다. 또한 단순한 가설검정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주의적 인과관계 분석은 변수들 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잘못 상정함으로써 분석모델의 '잘못된 설정'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며, 그럼으로써 인과관계의 본 모습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결국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정치학의 실증주의적 분석들이 충분한 지식으로 축적되지 못한 채 현실 세계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Mearsheimer and Walt 2013, 437-445).<sup>4)</sup> 그렇다면 국제정치학 연구의 주류 방법으로 군림해온 실증주의와 그 인과성 개념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 3. 탈(脫)실증주의와 과학적 실재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 자연주의 전통에서는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모든 과학이론이 환원주의적인 탐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여 자연과 사회 현상 모두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 탐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관념론, 해석학, 신칸트주의, 인간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반(反)자연주의 전통에서는 '실재'를 인정하기 이전에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의 기초를 중시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자

- 
- 3) 여기에서 '우연성'이 곧 인과성의 부정 또는 불가지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관찰 대상에 우연성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률적' 접근을 통해 일정한 규칙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 4) 국제정치 이론이 쇠퇴하고 가설검정을 통한 양적 분석이 증가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연구 성과를 양산해야 하는 학계의 분위기 탓이 크다. 이와 더불어 경험적 연구의 표준화를 주장해 온 『사회탐구의 디자인』과 민주평화론 패러다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Mearsheimer and Walt 2013, 445-448).



연과 사회는 본질적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현상에 환원론적 실증주의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극단적인 양대 인식론 사이의 갈등은 오늘날 사회과학 내부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국제정치학에서는 그 골이 더욱 깊다.

정치학 분야에서 ‘과학’의 이름으로 학문적 통합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탐구의 디자인』(King et al. 1994)으로 집대성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사례연구나 비교연구 등 정성적 분석이 통계분석과 같은 실증주의적 방법에 비해 ‘과학’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sup>5)</sup> 이들은 질적 분석이건 양적 분석이건 ‘과학’이라는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과학적 방법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질적 연구자들에게 ‘과학’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환원주의의 멍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사연구나 지역학 등 정성적 데이터를 다루는 학자들은 이러한 킹, 코헤인, 버바의 제안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정치학에서 오랜 기간 전개되어온 탈(脫)실증주의의 추세는 주류 실증주의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1980년대 말 ‘제3의 논쟁’의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탈실증주의는 다양한 비주류 이론의 주변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인식론적 유사성에 주목한다. 먼저 탈실증주의는 메타이론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즉 이론 자체보다는 이론들 사이의 거대 담론 또는 패러다임의 속성에 더 주목하며, 이론의 기반을 형성하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전제조건과 가정의 본질을 파헤친다. 그동안 실증주의의 경험적 분석이 수많은 이론들과 상충되는 결과를 양산해온 선례에 비추어 이들 간의 관계 이면에 숨겨진 선형적 측면, 즉 패러다임의 전제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탈실증주의는 과학적 보편성의 도그마를 경계하면서 인식론적 상대주의와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Lapid 1989, 239-244). 그렇다면 과학의 대상이 되는 ‘실재’(reality)와 그것을 다루는 다양한 ‘시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회라는 집합체가 관찰 가능한 최소 단위체인 개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5) 킹, 코헤인, 버바(1994, 208-230)는 사례연구자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가 ‘적은 수의 사례’(small-N)라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사례의 수를 가능한 한 많이 늘리는 방법이 정성적 연구를 과학적으로 개선하는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어렵다. 사회현상은 개인과 집단을 아우르는 다양한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특성들이 다시 개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형 피드백 구조를 띤다. 따라서 비선형적 구조를 가진 사회현상을 단지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구성요소인 개체로 환원시키려는 기존의 과학적 방법론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사회적 ‘실재’가 단지 물리적인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즉 단순하고도 관찰 가능한 감각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증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과학의 임무가 ‘관찰 가능한 것’의 패턴으로부터 규칙성을 예측해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개념, 예를 들어 물리학의 ‘소립자’와 같은 개념조차도 이러한 예측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간주한다(Putnam 1997, 181-182). 즉 과학은 항상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것의 축적을 통해 발전된다는 것이 실증주의자들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따를 경우 경험적으로 관찰 불가능한 것을 과학적으로 다룰 방법이 없다. 인간의 지각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마이클 폴라니(Polanyi 1968)에 의하면,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하지 않은 실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은 관찰에 앞서 이론이 먼저 제시된 전형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경험적 내용이 빈약한 상황에서도 이 이론은 내용상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이론의 지위를 먼저 부여받았고, 경험적 검증은 추후에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이론들과 달리 이러한 반증 사례야말로 경험적 관찰만을 중시하는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첫째, 관찰을 통한 발견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식이란 어떤 속성을 갖는 것인가? 둘째, 숨겨진 실재는 그것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Wigner and Hodgkin 1977, 430).

이와 연관하여 과학적 실재론의 초석을 제공한 로이 바스카(Bhaskar 1997)는 “과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실재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사물의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실재의 속성을 확인하는 출발점으로서 ‘합리적 준거점’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과학적 실험의 목적은 단지 감각적으로 알려진 대상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감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실재의 모습까지도 찾아내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감각적 대상을 넘어서는 실재가 없다면 과학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바스카의 이와 같은 입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과

학의 영역을 좁혀온 실증주의와 지식의 상대주의적 속성을 과도하게 강조해온 구성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는 것으로서, 플라니의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과학적 지식의 근본적인 속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학적 실재론은 20세기에 들어와 형성되기 시작한 인식론적 전환으로서, 주로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출발하였다. 과학의 진보에 자극을 받아 사회과학에서도 빠르게 도입되던 논리실증주의는 과학적 엄밀성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관찰의 이론의존성, 분석과 종합, 관찰과 의미의 연관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과학적 실재론은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과학 내에서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인식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과학적 실재론이 국제정치학의 탈실증주의 추세 속에서 '실재'의 개념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동안 인과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흘의 규칙성 모델과 더불어 비교연구, 인과 메커니즘 모델, 반사실적 모델, 예측 모델, 통제 모델, 인과적 재구성 모델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왔다. 흘의 모델은 인과관계가 관찰 가능한 규칙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시적 동시발생'(constant conjunctions)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상시적 동시발생의 전제 하에 모든 원인은 결국 '동인'(efficient cause)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흘의 생각이었다(Kurki 2008, 36-38).

이에 비해 과학적 실재론은 인간의 인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를 인정하는 '심층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흘의 인과관계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존재론은 인식론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실재론자들의 출발점이었다. 오랫동안 인식론과 방법론 논쟁에 시달려온 국제정치학자들은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의 이분법적 논리구도를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노력했는데, 과학적 실재론은 이를 위한 훌륭한 동기를 제공했다(Wendt 1999; Jackson 2008). 우선 과학적 실재론은 인간의 마음이나 인지능력과는 독립적으로 바깥세상, 즉 실재가 존재한다고 보는 점에서 탈실증주의의 극단적인 입장과 거리를 둔다. 또한 그러한 실재가 항상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될 수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실증주의와도 차별화된다. 그리하여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실재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은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론적으로 과학적 실재론은 상대주의 또는 다원주의의 성향을 보이곤 한다(Patomäki and Wight 2000, 224).

국제정치에서 과학적 존재론의 논의를 강조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존재론은 국제정치를 구성하는 실체와 과정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행위자가 누구인지, 그들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 또는 개체로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과정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을 밝히고자 한다(Jackson and Nexon 2013, 550-551).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 실재론의 도움을 받아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독단론을 견제하면서 복수의 이론을 허용하는 과학적 인식론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인과관계를 그려낼 수 있고, 기존의 일반법칙 기반 인과성의 한계를 넘어 이론적 정합성을 갖춘 인과성, 즉 ‘메커니즘’ 기반의 인과관계를 추구할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 III. 인과성의 재개념화: 메커니즘 기반의 인과관계

#### 1. 창발성: 메커니즘의 개념은 왜 필요한가?

과학적 실재론에서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객체를 ‘메커니즘’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존재하게끔 만드는 인과적 과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세포의 신진대사, 뇌의 신경망, 공장 업무, 법원 소송 등이 모두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메커니즘은 실제로 관찰하기 쉽지 않으며, 대부분 이론적 개념이나 프레임워크에 의해 간접적으로 추정될 따름이다. 폴라니가 제시한 ‘암묵적 지식’도 우리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험적 영역을 넘어서는 것들을 총칭하는 메커니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sup>6)</sup> 과학적 실재론에 따르면, 존재론의 영역은 주어진 현상과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표 1>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뉜다. 실증주의를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바스카는 우리가 관찰하거나 경험하는 능력과는 별도로 실제의 사건은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이것을 그는 ‘현실영역’이라고 불렀다. 현실영역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건 못하건 사건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6) 폴라니에 따르면, 모든 지식은 암묵적이거나 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지식일 따름이므로 순수한 ‘형식지’란 존재하지 않는다(Wigner and Hodgkin 1977, 432).

〈표 1〉 존재의 세 영역

	실재(real)영역	현실(actual)영역	경험(empirical)영역
메커니즘	○		
사건	○	○	
경험	○	○	○

출처: Bhaskar(1997, 13).

사건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재영역’을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Bhaskar 1997, 13-14).

이러한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실재’의 작동 메커니즘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곧 과학이라고 보며, 이를 통해서 “관찰대상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비록 이러한 답이 과학영역이나 연구자들의 패러다임과 이론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모두에서 그 작동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작업이 곧 ‘설명’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메커니즘은 설명을 넘어 이해와 통제를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존재론의 영역을 이처럼 세 가지로 구분할 경우 우리는 경험에 기반을 둔 과학의 층위에서 언제나 현실의 사건이나 실재의 메커니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는 대상을 인식하려 할 때마다 경험과 이론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이론 미결정성’(underdetermination)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하나의 현상을 낳는 메커니즘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딜레마로 이어진다.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관찰대상이 복잡할 뿐 아니라 연구 대상이 대부분 사고와 관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Stace 1939, 304).

이론 미결정성의 문제가 상존한다는 제약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관찰과 이론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택할 수 있다. 첫째, 실증주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론의 존재론적 범위를 우리들의 인식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에 국한시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같이 경험적 관찰이 즉각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론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극단적인 탈실증주의와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상대주의를 택함으로써 이론에 따라 현실 세계의 존재론적 이미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의 대안은 극단적인 실증주의에 함몰될 우려가 있고, 둘째의 대안은 상대주의적 입장에 빠질 수 있다. 과학적 실재론이 이러한 딜레마

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발성’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 실재론의 메커니즘 관념은 우리의 탐구 대상이 ‘경계’를 지닌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플라니는 기계라는 대상이 작동 목적을 지닌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두 가지의 독자적인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다. 첫 번째 원리는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하위의 법칙을 의미하는데, 물리 및 화학법칙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하위원칙들이 작동하는 ‘범위’와 ‘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플라니(1968, 1308)는 이 두 번째 원리를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s)이라고 불렀다. 경계조건은 기계와 같은 시스템들이 작동할 때 외부로부터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사회 현상이 경험영역, 현실영역, 실재영역의 다층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계조건 개념은 구조의 각 수준마다 작동원리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각각의 인식론적 분석수준에서는 하위원칙과 더불어 그 수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작동원칙들이 존재하며, 그로부터 단순한 구성요소들의 합을 넘어서는 질적 변화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념은 오랫동안 사회과학의 관행으로 자리 잡아온 분석수준의 문제와 연관되는데, 이런 점에서 분석수준은 세계를 ‘층화된’(stratified) 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을 층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각 층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비선형 관계와 더불어 각 층간의 관계, 그리고 층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부 요소들의 비선형 관계 및 ‘시간적 지체’의 개념까지 고려해야만 한다.<sup>7)</sup> 이처럼 시스템 복잡성과 역사성의 요소까지 고려할 경우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예측불가능한 창발성의 모습을 설명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방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발적인 속성을 지닌 모든 사회 현상이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열린 시스템’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포퍼나 험펠의 실증주의 과학철학에서는 “ $X \rightarrow Y$ ”의 형태로 표현되는 법칙성을 통해 인과관계를 찾고자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찰의 대상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닫힌 시스템’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철저한 통제 하에 실험이 이

7) 예를 들어 어떤 시점( $t'$ )에서 부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 수준에서의 거시적 현상이 창발되었다면, 이것은 다시 미시적 차원의 부분, 즉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시간적 지체의 관념에 따라 다음 시점( $t''$ )에서 부분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시적 현상이 창발하게 될 경우 부분은 더 이상 이전 시점( $t'$ )의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새롭게 창발하게 될 거시적 현상은 이전의 거시적 현상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해진다(Soto and Sonnenschein 2006, 372-373).

루어지는 자연과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대상은 ‘열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항상 창발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만큼 실증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규칙성과 법칙이 우리가 관찰하거나 예측한대로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2. 인과적 메커니즘이란 무엇인가?

인과적 메커니즘은 그것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주어진 결과, 즉 종속변수를 생성하는 충분조건으로서, 유용한 인과적 메커니즘은 연구자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적 관찰을 가능하게 해주며 상관관계 연구들이 하나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준다(Mahoney 2001, 580-581). 학자들은 메커니즘을 ‘많은 수의 구성요소들이 직접적인 인과법칙에 따라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규정한다(Glennan 1996, 52; Bennett 2013, 466). 복잡한 시스템은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무수하게 많은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나 역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따라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적절하게 기술하는 일이야말로 인과적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연속적인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동반한다. 그런 만큼 인과적 메커니즘의 개념은 시공간 상에서 관찰되는 보편적 규칙성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작동 장치에 더 관심을 둔다.<sup>8)</sup> 물론 이러한 인과적 메커니즘은 직접적인 관찰이 어렵지만 존재론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인과적 메커니즘’은 특정한 상황 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자들의 ‘법칙’ 개념과 유사하다. 하지만 ‘포괄법칙’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인과성의 경우 작동 메커니즘의 서로 다른 수준에서 존재하는 세부적인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보다는 ‘반복적 패턴’을 발견하는 데에 치중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실재론적 설명은 거시적 차원의 사회현상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미시

8) 엘스터(Elster 1998, 47-49)는 실증주의적 ‘법칙’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제 과정을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블랙박스’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보았다.



적 차원의 관찰 결과와도 모순되지 않도록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Bennett 2013, 466-467).

여기서 과학적 실재론의 인과 메커니즘이 실증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관찰 가능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실재론에서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우리 머릿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직접적인 관찰이 어렵지만 메커니즘은 구체적인 ‘시스템 과정’으로서 사회 현상을 만들어낸다(Bunge 2004, 191). 따라서 인과적 메커니즘은 경험적 관찰이 아니라 ‘추론’에 의해 만들어진다. 추론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추론이 경험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현상들 사이의 규칙적인 관계조차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포괄적 법칙을 기반으로 한 실증주의의 인과성은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을 하나의 ‘블랙박스’로 처리해왔지만, 과학적 실재론은 이러한 블랙박스를 열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데 치중한다. 실증주의적 법칙 탐구가 ‘무엇’(what)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면, 메커니즘 기반 설명은 관찰된 현상이 ‘어떻게’(how) 작동하는 것인지를 추론하는 것이다. 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동적’ 메커니즘을 밝혀냄으로써 블랙박스를 ‘투명박스’(translucent box)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Elster 2007, 33).<sup>9)</sup>

메커니즘의 개념은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변화’ 또는 변화의 ‘통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 현상 자체는 많은 경우에 설명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 존재가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과정, 즉 ‘창발’이나 ‘소멸’은 우리의 관심을 유발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메커니즘 기반 설명은 시스템의 구성요소, 구조, 환경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이들이 ‘시간’ 변수에 대하여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메커니즘 기반 설명은 논리나 수학, 일반언어학과 같은 추상적 일반화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탐색한다(Bunge 1997, 416-418). 모든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탐구의 대상을 적절한 상황과 범위 안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인과적 메커니즘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특정한 유형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9) 봉계(Bunge 1997, 432)에 의하면, 메커니즘 기반 설명방법의 설명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원한다. 즉 “무엇이 일어났는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물음으로써 설명이 하나의 ‘심층이론’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도구로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메커니즘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하나의 시스템 ‘과정’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Tilly 2001, 24-25).

메커니즘은 어원상 “은밀한 것의 껍질을 벗기거나 명확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Bunge 1997, 437). 따라서 어떤 구체적 사실 또는 현상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다. 이러한 주장은 탐구행위의 분석수준이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사회과학에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선택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메커니즘의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느 한 쪽의 극단을 취하기보다 적절한 분석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타협을 통해 현상의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이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행위자와 구조 차원의 설명과 더불어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보적인 주장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과학적 실재론과 메커니즘 기반 인과관계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극단적 실증주의와 극단적 탈실증주의 사이에 대화와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극단적 실증주의는 ‘관찰가능한 대상’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극단적 탈실증주의는 인식의 상대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보편법칙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자가 ‘규칙성’을 중시한다면, 후자는 ‘상황’과 ‘맥락’에 더 관심을 쏟는다. 인과적 메커니즘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두 가치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 극단의 입장 사이에서 보완적인 노선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인과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규칙성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메커니즘’을 중시함으로써 실제 사례가 어떤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다. 인과적 메커니즘이 서로 연관된 개체들의 집합체로서 다양한 현상과 효과를 규칙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노력을 통해 패러다임 간의 방법론적 간극은 훨씬 줄어들뿐더러 이론의 통합과 진보의 가능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철학적 논의가 국제정치학에서 어떤 이론적 의미를 갖는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10) 봉계(2004, 203)는 설명이 ‘법칙적 메커니즘(lawful mechanism)을 드러내거나 가정하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시스템 작동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설명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 IV. 국제정치학의 방법론 논의와 이론적 함의

한 세기 이상에 걸쳐 진행되어온 과학철학의 논쟁으로부터 국제정치 또는 사회과학 연구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엄밀한 ‘과학적 기준’을 기대하기란 난망한 상황이었다. 이론적 패러다임의 차이는 인식론과 방법론의 파편화로 이어졌고, 대화와 소통의 부재는 갈등구조를 더욱 고착시켜왔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과학적 실재론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논의는 주류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탈실증주의적 논의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정치학에서 전개된 ‘제3의 논쟁’ 역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비판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이론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접근방법들 사이에 상호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Wendt 1998, 103).<sup>11)</sup> 이런 배경 하에 이 논문에서 살펴본 방법론적 고찰이 향후 국제정치이론의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려 한다.

첫째,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국제정치학 연구의 방법론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 ‘과학’의 개념을 보다 넓게 규정하자는 움직임이 최근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학문적 노력 사이에 패러다임의 차이를 넘어 지식에 대한 서로의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비의 원칙’이 눈에 띄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어떤 주장을 접할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저자나 이론가의 의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해나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서로 대치하는 패러다임 사이의 갈등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자비의 법칙은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주장이 ‘참’ 또는 ‘합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과학의 존재 근거를 ‘방법’ 자체보다는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은 과학이 특정한 방법에 대해서만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공감하고 있다. 서로 다른 전통의 학문공동체 사

11) 알렉산더 웬트는 구성주의 프레임워크를 국제정치에 적용하면서 ‘설명’과 ‘이해’의 전통이 마치 ‘설명 대 기술’의 대립구조로 인식되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양대 전통의 차이는 ‘인과적 설명’인가 아니면 ‘구성적 설명’인가의 차이에 불과하다(Wendt 1998, 104).

이에서도 협력을 위해 지식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은 본질적으로 다원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과학이 실증주의의 전유물인 것처럼 간주되어온 관행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과학’을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또 ‘자비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실증주의 중심의 기존 지배구조를 넘어서야 하며, 동시에 극단적인 상대주의 또는 지식 회의론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인식’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론적 합의가 먼저 요구된다. 인식론과 방법론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과학’의 기준을 수립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칫 우리가 탐구하는 ‘대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Jackson 2011, 27).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과학철학과 인식론 논쟁을 멈추고 ‘존재론’에 관한 성찰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과적 메커니즘과 설명방식에 관한 논의가 서로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국제정치학 내에서 활발한 소통과 더불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축적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Bennett 2013, 461). 그동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경험적 사실의 발견이 이루어진 연후에 이를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사후적’(a posteriori)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성향은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에 더하여 서로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고 호환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수립한다면 학제 간 교류 및 발전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양한 이론들 사이에 ‘공동의 언어’를 통한 비교와 대화를 모색함으로써 그동안 분열되어 있던 국제정치학의 여러 패러다임 사이에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를 구축하고, 서로 보완적인 방식으로 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학제적 통합과 지식의 축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Chernoff 2002, 202-204; Sil 2000, 500-501).

둘째, 기존의 실증주의적 인과성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인과적 메커니즘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부득불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가 분석의 환원주의적 성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과학은 오랫동안 궁극적인 최소 수준의 단위체로 인과관계의 지향성을 결정짓는 환원주의 성향을 배척해왔다. 사회과학의 설명이 항상 미시적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자연과학의 차원으로 옮겨갈 필요는 없지만, 설명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환원작업은 불가피하다. 이는 곧 사회현상을 야

기하는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미시적 차원의 구성요소들과 그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한대의 환원주의적 설명은 사회과학의 존재근거를 무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 유의해야 할 점이다.

국제정치학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구조적 변수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심지어 환원주의적 설명조차도 국내정치적 변수, 예를 들어 국가나 사회제도에 국한됨으로써 미시적인 차원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심리학과 생물학의 발전에 힘입은 외교정책 연구는 미시적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그러한 메커니즘이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일한 거시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의 다중적 구현 가능성’(multiple realizability)을 보여준다(McGinley 2014, 383-387). 또한 현실 세계의 창발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미시적 구성요소 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과 달리 잘 알려진 법칙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이 이루어지는 수준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이론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일반적인 설명 구조를 밝힘과 동시에 적절한 상황적 변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은 수의 사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은 일반법칙보다는 외부요인으로서 ‘상황변수’를 중시해왔다. 보편적인 메커니즘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이 다르다면 동일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적절한 인과적 맥락의 제 측면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Falletti and Lynch 2009, 1161). 따라서 보편 시스템으로서 인과적 메커니즘의 개념이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는데 있어 필요한 상황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구는 탐구의 대상이 훨씬 더 크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국제정치학에서 무시할 수 없는 주문이다.

결국 인과적 메커니즘은 사회과학의 설명작업에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복잡한 사회시스템에 존재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한 결과( $Y$ )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메커니즘( $A$ )이 존재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 $B$ )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  $A$ 와  $B$ 의 작용이

$Y$ 를 발생시키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차이를 보이는가를 일반법칙으로 구현하기는 매우 힘들다.<sup>12)</sup> 이러한 비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정추적법이나 중범위이론 등을 통해 메커니즘의 작동조건을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George and Bennett 2005, 146-147). 이러한 주장은 일반법칙 기반 설명과 메커니즘 기반 설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가 설명하려는 대상의 작동 메커니즘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야기하는 초기조건을 밝혀낼 수 있다면 메커니즘 기반 설명이 자연스럽게 법칙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과적 메커니즘 개념을 정성적 연구, 예를 들어 과정추적법이나 비교 연구와 같이 소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로의존적 설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과적 연계성을 구현하면서도 상황의존적 측면을 풍부하게 기술해내는 데 메커니즘 개념이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러한 연구방법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한 경로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로가 설명의 범위를 제약하는 구속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된다. 이를 통해 소수의 사례연구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세부적이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루면서도 희소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상황의존적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지만 제대로 관찰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탐색하고 여러 사건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드러낼 수 있다(Bennett and Elman 2006, 260-264).<sup>13)</sup> 그만큼 전통적인 정성적 연구방법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과학적 접근방법과 호환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 인과적 메커니즘 개념의 역할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한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우리는 이에 대한 경계

12) 이처럼 하나의 종속변수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의 서로 다른 효과를 다루는 이론을 '우연적 (aleatory) 이론'이라고 부른다. 엘스터(1993, 3-7)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서로 다른 조건을 모델화 하는 작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13)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최근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역사적 사례연구자들이 자주 활용해온 이 방법은 사건의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관된 패턴들을 발견함으로써 일반화를 모색한다. 예를 들어, 리사 마틴(Martin 1992)의 연구는 포클랜드전쟁의 사례를 통해 '제도'가 국가 간의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건의 전개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설명변수로서 '제도'와 종속변수로서 '협력'의 인과관계가 드러나는데, 비록 사례 수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사례의 '상황적 요인'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통계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실 과학적 실재론을 국제정치학에 최초로 도입한 것은 웬트였는데, 분열된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을 연결하겠다는 것이 그의 취지였다. 그가 인식론적으로는 실증주의를,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는 탈실증주의에 기울어진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Wendt 1999, 90-91). 하지만 거창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은 양 진영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으며, 막연한 절충주의만으로는 진정한 학제적 대화와 통합이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후 국제정치학의 이론 및 방법론 논쟁은 ‘통합’의 노력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과학적 진보에 대한 판단 기준은 패러다임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간주되었고, 지식은 오직 소규모 공동체에서만 생산 및 소비될 따름이므로 이를 패러다임 바깥으로 확대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론이 우세해졌다(Lake 2013, 580).

이와 관련하여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가 모두 ‘반(反)실재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각자의 패러다임 내에서만 설명과 이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타당성을 지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모든 패러다임의 학문적 노력은 그 결과를 널리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식생산 활동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무리한 통합보다는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린다. 그런 만큼 한층 더 관용적인 메타이론적 논의를 통해 상이한 패러다임 사이에 통약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며, 과학의 이름으로 인식론적 다원주의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Patomäki and Wight 2000, 214-215). 그리하여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세계를 인정하고 설명의 다원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과학의 설명 모델을 더욱 포괄적이면서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과적 설명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art)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Bunge 2004, 200-201).

## V. 맺는 말

국제정치학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실증주의 중심의 과학적 접근방식이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 이후 탈실증주의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는 했지만 실증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도전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실증주의의 인과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설명모델을 검토하는 일은 국제정치학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훌륭한 출발점이 된다. 국제정치학의 실증주의 연구는 그동안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설명모델을 채택해왔지만 지식의 축적이라는 차원에서는 눈에 필만한 성과를 이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과학, 특히 국제정치학의 탐구대상이 대부분 거시적인 단위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스템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규칙성과 반복적 패턴을 발견하려는 설명모델은 분명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제정치학의 파편화를 야기해온 연구 패러다임 사이의 방법론적 균열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조류인 탈실증주의의 영향을 검토하고, 기존의 인식론적 논쟁에서 야기된 패러다임 간의 대화 단절과 소통 부재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존재론적 논의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인간의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모델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론적 다원주의로 이어진다. 특히 관찰할 수 없는 것도 설명의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 ‘메커니즘’이라는 개념이 인과관계의 핵심적인 개념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적 실재론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적 인과관계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해왔는데, 이 논문에서는 열린 시스템으로서 사회현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론의 미결정성 및 창발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메커니즘적 설명모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법칙과 같은 규칙성을 발견하는 데에만 집착해온 실증주의적 인과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오늘날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이 사회과학의 어느 분야보다 다양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방법론적 고찰은 이론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적으로 ‘과학적’ 탐구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재단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양한 패러다임의 학문적 노력들을 최대한 인정함으로써 서로 호환적이면서 지식 축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과학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를 통해 미시적인 차원의 연구를 더욱 증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환원주의의 덫에 빠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미시적 작동 메커니즘을 구현하는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메커니즘의 보편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에서는 개별 상황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정치학 패러다임 사이의 오랜 인식론적, 방법론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한층 더 건설적



인 방식으로 학문의 진보와 지식의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15년 4월 15일

심사일: 2015년 5월 2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일

## 참고문헌

- Bennett, Andrew. 2013. "The Mother of All Isms: Causal Mechanisms and Structured Plur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 No. 3, 459-481.
- Bennett, Andrew and Colin Elman. 2006. "Complex Causal Relations and Case Study Methods: The Example of Path Dependence." *Political Analysis* 14, 250-267.
- Bhaskar, Roy. 1997.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ondon: Verso.
- Bunge, Mario. 1997. "Mechanism and Explanation."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27. No. 4, 410-465.
- \_\_\_\_\_. 2004. "How Does It Work? The Search for Explanatory Mechanisms."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34. No. 2, 182-210.
- Chernoff, Fred. 2002. "Scientific Realism as a Meta-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6, 180-207.
- Dessler, David. 1991. "Beyond Correlations: Toward a Causal Theory of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 337-355.
- Elster, Jon. 1993. *Politic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A Plea for Mechanisms." In Peter Hedström and Richard Swedberg, eds. *Social Mechanisms: An Analytical Approach to Social Theory*, 45-7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7. *Explaining Social Behavior: More Nuts and Bolts for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lletti, Tulia G. and Julia F. Lynch. 2009. "Context and Causal Mechanisms in Politica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 No. 9, 1143-1166.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The MIT Press.
- Glennan, Stuart S. 1996. "Mechanisms and the Nature of Causation." *Erkenntnis* 44, 49-71.
- Hoffmann, Stanley. 1977.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aedalus* 106. No. 3, 41-60.
- Jackson, Patrick T. 2008. "Foregrounding Ontology: Dualism, Monism, and IR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4, 129-153.
- \_\_\_\_\_. 2011. *The Conduct of Inqui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of Sci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London: Routledge.
- Jackson, Patrick T. and Daniel H. Nexon. 2013.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aradigmatic Era: From Substantive Wagers to Scientific Ontologi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 No. 3, 543-565.
- King, Gary,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rki, Milja. 2008. *Caus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claiming Caus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e, David A. 2013. "Theory Is Dead, Long Live Theory: The End of the Great Debates and the Rise of Eclectic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 No. 3, 567-587.
- Lapid, Yosef. 1989. "The Third Debate: On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ositivist Er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 235-254.
- Mahoney, James. 2001. "Beyond Correlational Analysis: Recent Innovations in Theory and Method." *Sociological Forum* 16. No. 3, 575-593.
- Maliniak, Daniel, Amy Oakes, Susan Peterson, and Michael J. Tierney. 2011.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US Acade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5, 437-464.
- Martin, Lisa L. 1992.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Sanctions during the Falkland Islands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16. No. 4, 143-178.
- Mayr, Ernst. 1988. *Toward a New Philosophy of Biology: Observations of an Evolutionis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cGinley, William. 2014. "Mechanisms and Microfound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0, 367-389.
-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2013. "Leaving Theory Behind: Why Simplistic Hypothesis Testing Is Bad for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 No. 3, 427-457.

- Nuzzo, Regina. 2014. "Statistical Errors." *Nature* 506, 150-152.
- Patomäki, Heikki and Colin Wight. 2000. "After Postpositivism? The Promises of Critical Realis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 213-237.
- Polanyi, Michael. 1968. "Life's Irreducible Structure." *Science* 160. No. 3834. 1308-1312.
- Putnam, Hilary. 1997. "A Half Century of Philosophy, Viewed From Within." *Daedalus* 126. No. 1, 175-208.
- Sil, Rudra. 2000.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al Science Research: Unified Methodology or 'Organic Solidarity'?" *Polity* 32. No. 4, 499-531.
- Soto, Ana M. and Carlos Sonnenschein. 2006. "Emergentism by Default: A View from the Bench." *Synthese* 151, 361-376.
- Stace, W. T. 1939. "Novelty, Indeterminism, and Emergence." *Philosophical Review* 48. No. 3, 296-310.
- Suganami, Hidemi. 2013. "Causation-in-the-World: A Contribution to Meta-Theory of IR." *Millennium* 41. No. 3, 623-643.
- Tilly, Charles. 2001. "Mechanisms in Political Process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4, 21-41.
- Wendt, Alexander. 1998. "On Constitution and Caus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4. No. 5, 101-117.
- \_\_\_\_\_.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gner, E. P. and R. A. Hodgkin. 1977. "Michael Polanyi, 12 March 1891~22 February 1976." *Biographical Memoirs of Fellows of the Royal Society* 23, 413-448.
- Ziliak, Stephen T. and Deirdre N. McCloskey. 2008. *The Cult of Statistical Significance: How the Standard Error Costs Us Jobs, Justice, and Liv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BSTRACT

---

## Causality and Mechanis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Study of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Byoung Won Min |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the trend of post-positivism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inds its implications for ontological discussions in overcoming current problems of inter-paradigm discourses and communications. The review proposes an epistemological pluralism, which allows multiple explanatory models for the reality that exists independently of human consciousness. The paper also introduces scientific realism, which provides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the notion of theoretical mechanism as an alternative model of causal relationship. Detailed discussions are to be on theoretical underdetermination and emergence have troubled the study of social phenomena as open systems. Upon these discussions, the paper proposes a project to make the dominant positivist approach revise its courses for soci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eyond current focus on general law and regularities. As such, the paper argues for a generosity in evaluating scientific efforts in social sciences and for an extension of conceptual and applicable ranges of science that lead diverse paradigms to become more commensurable and to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Keywords:** international relations, causality, mechanisms, methodology, explanatory models, scientific realism